

▶ 가족·아동

남녀 고등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 분석

김 명 자 (숙명여자대학교 가정자원경영학 전공 교수)

이 나 진* (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 전공 석사)

본 연구는 현재 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향후 노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주역인 남녀 고등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알아봄으로써 노인에 대해 바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.

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고등학생의 성별, 조부모 관련 변인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와 영향력이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. 본 연구는 서울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으로 강남구, 강서구, 관악구, 동대문구, 종로구, 중랑구에 위치한 고등학교 및 학원을 중심으로 502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. 연구도구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선자(1988)의 척도를 모체로 이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7개의 요인으로 추출하였으며, 자료 분석은 SPSS Windows 12.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, 백분율, 평균,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, t-test, one-way ANOVA를 실시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, Duncan의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. 또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다중회귀분석(Multiple regression analysis)을 실시하였다.

분석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을 때 5점 만점 기준으로 남녀 고등학생 모두 자기관리 능력($M=3.60$)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특성($M=2.52$)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. 자기관리 능력에서 여학생($M=3.73$)과 남학생($M=3.49$) 모두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. 조부모 관련 변인을 살펴보았을 때 결과가 가장 유의미하게 나온 변인은 조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손자녀의 인식으로 매우 긍정적, 긍정적인 집단과 부정적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, 동거 만족도에서는 만족, 보통, 불만족 모두 각각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. 그 다음으로는 조부모와의 만남 횟수에서 일주일에 1회 이상 만나는 집단과 거의 만나지 않는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조부모와의 전화횟수가 일주일에 1회 이상인 집단과 1년에 1-2회이거나 거의 통화하지 않는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. 고등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부터 살펴보면 조부모 동거 경험 만족도($\beta=0.26^{***}$, $p<.001$)로 만족할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,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($\beta=0.21^*$, $p<.05$)이, 어머니 직업에서는 기타(1차 산업, 단순노무직, 운수기능직) ($\beta=0.18^*$, $p<.05$) 일 때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. 하지만 조부모와의 지리적 거리가 차로 2시간 미만($\beta=-0.24^*$, $p<.05$)일 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30%이었다.

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생들이 노인에 대해 올바르게 긍정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게 하기 위해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, 조부모와의 정기적인 접촉 시도, 학교에서의 교육 뿐 아니라 자원봉사, 노인체험 등 다양한 교외활동을 통해 노인을 바르게 이해하고 더 이상 먼 존재가 아닌 가까운 존재임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, 조사 대상자를 고려한 다양한 조사 방법의 개발과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.